

현시기 과학연구부문에서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필수적요구

안 명 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연구부문에서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적극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과학연구부문에서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경제를 일신시키는데 절실히 요구되는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아야 한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과학연구부문에서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현시기 과학연구부문에서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필수적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지식경제시대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경제강국의 발전높이가 규제되기때문이다.

경제강국의 발전높이는 그것을 안받침하고있는 물질기술적토대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회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노동수단의 체계로서 그 수준은 노동수단의 발전수준, 경제부문구조의 발전수준에서 표현된다. 경제강국의 물질기술적토대의 발전수준은 노동수단의 첨단수준, 경제부문구조의 현대화, 정보화수준으로 나타난다. 노동수단의 발전수준, 경제부문구조의 발전수준은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좌우된다.

과학기술은 우선 노동수단의 발전수준을 경제강국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적극적으로 작용한다.

경제강국의 수준에 맞는 노동수단의 발전수준은 첨단기술수준이며 생산의 현대화, 무인화를 기술적으로 담보하여야 한다. 첨단수준의 노동수단, 지식경제강국을 기술적으로 담보하는 노동수단은 한마디로 고도로 지능화된 노동수단이며 이러한 노동수단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과학기술은 노동수단, 노동도구를 현대화, 지능화하기 위한 위력한 수단이다. 물론 기술은 그 발전수준으로 보아 수공업적기술, 기계기술, 첨단기술을 다같이 포함하고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지식경제시대 과학과 하나로 결합되어있는 기술은 첨단기술이다. 고도로 세분화되고 종합화된 과학과 결합되어있는 첨단기술을 리용하면 경제강국을 기술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높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킬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노동수단을 발전시킨다.

경제강국의 발전을 기술적으로 담보하는 노동수단의 발전수준은 고정되어있지 않고 끊임없이 높아진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지식폭발현상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 과학기술도 끊임없이 발전한다. 오늘의 과학기술이 래일에는 낡은것으로 밀려나고 첨단기술이 최첨단기술로 끊임없이 비약하는것이 과학기술발전의 시대적추세인것만큼 과학기술은 끊임없이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노동수단의 발전을 담보한다.

과학기술은 또한 경제부문구조, 산업구조를 경제강국의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작용한다.

경제부문구조는 사회적분업이 사회적으로 고착된것이며 사회적분업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하는데 따라 경제부문구조, 산업구조의 양상이 좌우된다. 사회적분업형성의 중요한 요인은 생산물에 대한 수요구조, 자원상태와 함께 과학기술이다. 그것은 새로운 사회적분업이 형성되는데는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제기되기때문이다.

생산력이 발전하는데 따라 사회적분업발전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은 더 높아진다. 1, 2, 3차의 사회적분업과 같은 최초의 분업구조가 형성되는데는 수요와 자원상태가 많이 작용하고 여기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은 높지 못하였다.

그러나 첫 산업혁명이후 출현한 공업이 여러 부문으로 세분화되면서부터는 분업형성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점차 높아졌다. 지식경제시대 첨단산업을 산생시키는 사회적분업은 수요구조나 자원상태보다도 과학기술에 의하여 발전한다.

과학기술은 지식경제시대에 이르러 지식산업, 첨단산업을 대대적으로 출현시켜 산업구조를 지식산업위주의 구조로 전환시킨다. 과학기술은 새로운 지식을 낳고 새로운 지식은 과학기술발전을 더욱 촉진시켜 지식자원으로 지적제품을 생산하는 지식산업이 산업구조에서 주도적위치를 차지하게 한다. 그리하여 나라의 경제부문구조, 산업구조가 첨단산업위주의 경제구조로 혁신되어 경제강국의 요구에 맞는 사회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축성된다.

현시기 과학연구부문에서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필수적요구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지식경제시대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경제강국의 발전속도가 규제되기때문이다.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꾸려져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지 못하면 그에 적응하게 생산이 발전할수 없고 경제강국이 요구하는 높이에서 경제의 빠른 발전을 이룩할수 없다.

경제강국의 요구에 맞게 사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꾸리는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것이 경제강국건설의 전부로 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경제강국건설은 생산의 물질적토대를 꾸리고 그것을 리용하여 사회적생산을 발전시키는 전과정을 포괄한다. 물론 경제강국을 빨리 건설하자면 경제관리를 개선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경제관리개선문제도 궁극에 가서는 이미 마련된 물질기술적토대가 자기의 위력을 최대한로 발양하게 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 경제강국의 빠른 발전은 최첨단수준으로 꾸려진 물질기술적토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킬 때에만 가능하다.

첨단수준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하여 경제강국의 빠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열쇠는 바로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에 있다.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은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게 한다.

지식경제시대에는 높은 지적능력을 소유한 지능로동자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의 기본담당자로 등장하여 첨단설비의 제작은 물론 그 리용의 직접적담당자로 되며 경제발전에서 핵심적역할을 놓고있다.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은 지능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질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게 하여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게 한다.

과학기술은 지식의 근원이며 원천이다. 지식은 지능로동자들의 지적능력에서 기본을 이룬다. 지능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질적수준은 그들의 두뇌속에 얼마나 많은 지식을 담고있는가 하는데 의하여 규정된다.

지식경제시대 과학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은 사람들의 지식수준을 높이고 풍부히 하여 그들이 경제강국의 요구에 맞게 꾸려진 물질기술적토대를 보다 목적의식적으로, 과학기술

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오늘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과정에 현대기초과학은 500종이상, 기술과학은 472종으로 더욱 세분화되었으며 극소형전자기술, 컴퓨터기술, 원자에너지기술, 새 재료기술, 새 에너르기원천기술, 생물공학기술 등 첨단기술분야들이 끊임없이 개척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지적능력을 더욱 높이고 현대화, 정보화된 로동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수많은 지식들이 산생되고있다.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은 사람들이 경제강국건설에서 한몫 할수 있는 풍부한 지식을 산생시킴으로써 그들의 지적능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현실적으로 오늘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에 의한 지적재부의 증대는 지능로동자들의 질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사회적재부의 창조와 경제발전에서 큰 몫을 담당하게 하고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은 지식경제의 물질기술적기초를 튼튼히 하는 지식자원을 끊임없이 증대시키며 지능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로동력수준을 높여 경제강국건설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을 옳바로 인식하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과 국방력강화,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음으로써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전반적기술장비수준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경제구조를 완비하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기어이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겠다는 민족적자존심과 과학적신념을 지니고 당의 품속에서 배운 지식과 재능을 총발동하여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나라의 전반적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이 마련해준 과학기술로마의 날개를 활짝 펴고 과학적재능과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망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과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고 첨단을 돌파하여 지식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국방력을 과학기술적으로 튼튼히 담보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방공업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방공업을 최첨단과학기술의 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우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식의 최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인민군대무장장비의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세계를 앞서나갈 포부와 배심을 가지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최첨단을 돌파하여야 한다.